

구름으로 빛은 연좌 위 마애불, 천년의 숨결 살아있네

〈蓮座·연꽃 모양으로 만든 불상(佛像)의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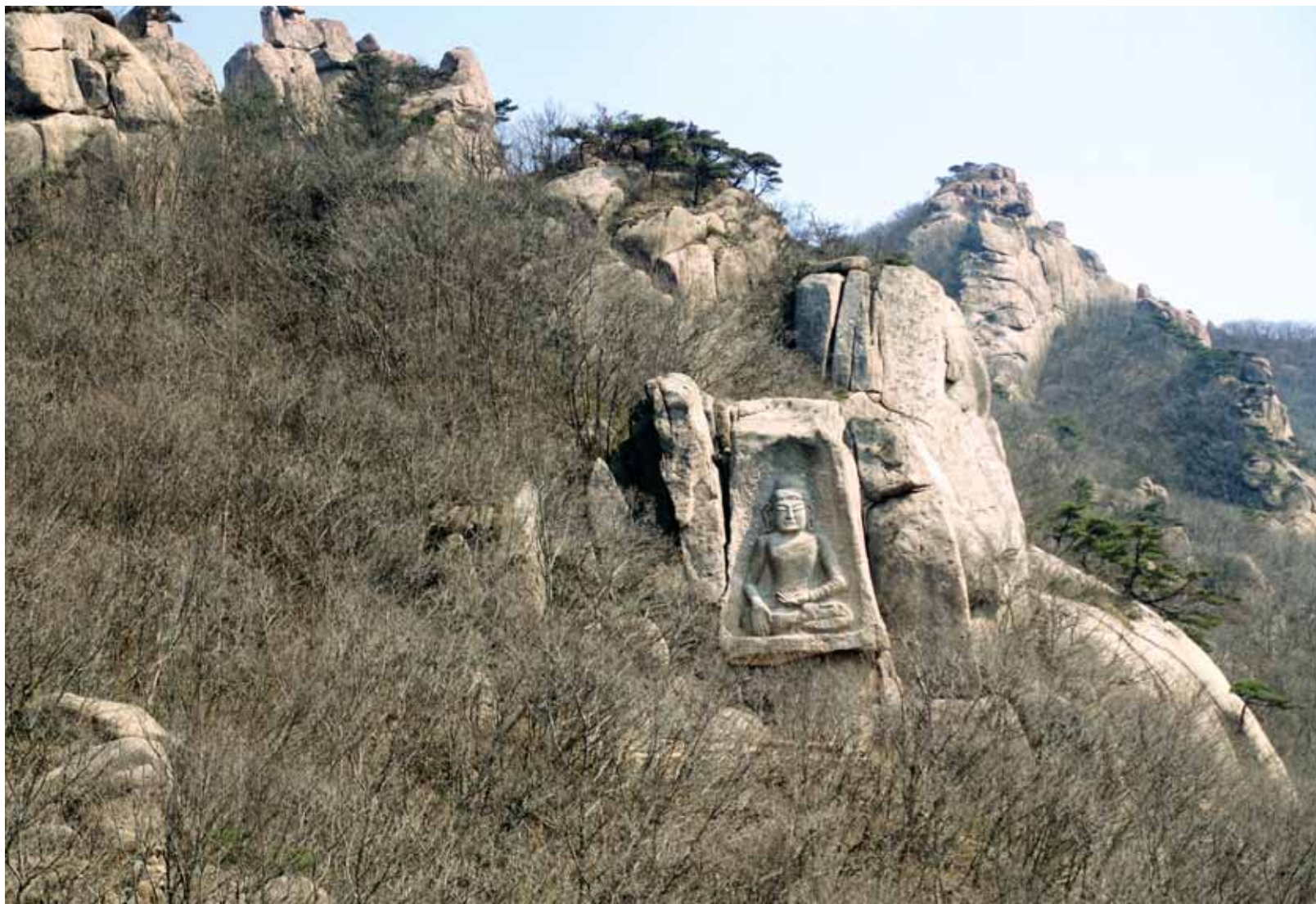
新湖南誌

〈33〉

전라도 1000년 호남을 바로 세우자

제9부 미술

① 불상에 깃든 미학·월출산 국보 마애불



국보 제114호 '영암 용암사지 마애여래좌상'.

전라도 들여다보기

고흥의 설화(說話)문학

김형주

전남 동남부에 위치하는 고흥은 전남 22개 시·군에서 네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반도형태의 지형적 특성에 힘입어 근래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고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백제시대에는 조조례현(남양면), 두할현(두원면), 비사현(동강면) 등 3개 현이 존재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조조례현이 남양현으로, 두할현이 두원현으로, 비사현이 태강현으로 변경되었고, 고려말에는 역관 유정신(柳淸臣)의 공적으로 고이부곡(고흥읍일대)이 고흥현으로 승격하였다. 조선초기인 1441년 고흥현과 보성에 속하던 남양현이 통합하여 흥양현이 되었고 1895년 흥양군으로 승격되었다가 1914년에 고흥군으로 개칭되었다.

역사적으로는 임진왜란 등 나라의 위난 시에는 송회립 등 많은 군민들이 초개와 같이 일어나 헌신한 충절의 고장이다.

고흥을 대표하는 주류 성씨로는 여산 송씨, 고흥 유씨, 평산 신씨 등이 있다.

광활한 터전을 가진 고흥답게 고흥지역은 예로부터 설화(說話)문학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옛이야기를 통칭하는 설화문학은 세부적으로 신화·전설·민담의 3가지를 아우르는 명칭이기는 하지만, 일반적 또는 좁은 의미의 설화는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 즉 민담을 지칭하고 있다.

설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민중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른바 구전설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구전설화는 시기별로 대규모 편찬발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단편적 또는 체계적으로 책자에 포함되어 문헌설화로 정착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구토지설 등 몇 개의 민담이 들어있는 삼국사기, 아사(阿舍)와 불교문화 설화문학의 종합자료집인 삼국유사 등의 고려시대 저술이 나왔고, 조선시대에 들어 본격적인 아담집들이 발간되었다. 조선초기 성현의 '용재총화'와 강희맹의 '촌담해이', 중기에 어우당 유몽인의 '어우야담', 후기에는 '청구야담', '동아취집' 등이 출간되었다.

어우야담(於于野談)은 1620년 편년 5권1책의 방대한 설화집으로 내용은 인륜, 종교, 학예, 사회, 만물론 등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한양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어우당은 문재가 뛰어나 23세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30세때 증광시(大科)에 장원급제하였다. 흥문관 수찬, 강원도사를 거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삼도순안언사로 세자 광해군을 호종하였고 전주 성군대사성, 황해도관찰사 등 요직을 지냈으나 반역 혐의로 안타깝게 옥사하였다. '어우(於于)'는 '과장하여 아첨한다'는 뜻인데 자신을 낮추는 반어적 표현이다.

고흥에서는 최근 개관한 분청문화박물관 내에 고흥을 본관으로 하는 어우당의 높은 학덕을 기리기 위해 설화문학실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설화문학실을 갖춘 분청문화박물관은 전시시설의 확충을 통한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소박하고 원초적 심성과 세계관이 고스란히 스며있는 설화문학의 본고장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최인선 순천대학교 박물관장

소백산맥의 끝에 위치한 월출산은 전남 영암군과 강진군의 경계를 이룬 명산(名山)이다. 기암괴석이 많아 남국(南國)의 소금강(小金剛)이라고도 불린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신라 때에는 월나산(月奈山), 고려 때에는 월생산(月生山)이라 불러 지명이 달(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월출산은 골산(骨山·돌산)이기 때문에 많은 골짜기들이 있으며, 여기에는 경주 남산과 비교될 만큼 여러 가지 불교 유적과 유물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전남지방에서 단일산으로 월출산만큼 불교 유적을 많이 갖고 있는 산도 없다. 불교의 유입은 백제시기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지만, 본격적인 수용은 통일신라 중대 이후이며,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불교문화가 더욱 꽃을 피우고 있다.

월출산의 불교문화는 여러 차례의 지표조사와 부분별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드러나 있는 상태이다. 불상은 마애불 7구, 석조불 2구, 대형 석불편 1, 금동불 2구, 목불 다수 등이 있으며, 석탑은 3층석탑 5개, 5층석탑 3개, 폐석탑 3개소 등 11개가 있다. 그리고 건물지의 발굴조사, 석탑의 복원, 새로운 문헌자료의 등장 등으로 계속해서 자료들이 속속하고 있으므로 보다 깊이 있는 불교문화를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월출산의 주봉인 천황봉(해발 809m)의 서쪽 능선방향으로 약 1km 지점에 위치한 구정봉(九井峯, 해발 738m)의 서쪽 종턱에 옛 절터가 있고, 그 위의 큰 바위면에 새겨진 불상(마애불)이 있다. 이 마애불은 1970년(동아일보 2월18일자)에 발견되어 '영암 월출산 마애불'(높이 8.6m)이라 이름 지어졌고, 마애불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조각 기법도 우수하여 1972년에 국보 제144호로 지정되었다.

마애불 아래 위치한 절터는 언제 창건되어 어느 시기에 폐사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 이 절의 창건과 폐사 시기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마애

고려초 창건 월출산 용암사

'남국의 소금강'에 불교 유적 산재

마애불 7구·석조불 2구·3층 석탑·

'용암사'·'통하이십오년정미' 기와

'고려 목종 10년' 1007년 창건 증거

폐사 뒤 임란 직후 1604년 중창

19세기 후반 폐사 된 듯

국보 144호 마애불

높이 8.6m 바위에 조각기법 우수

안정감 있고 장중한 인상에 박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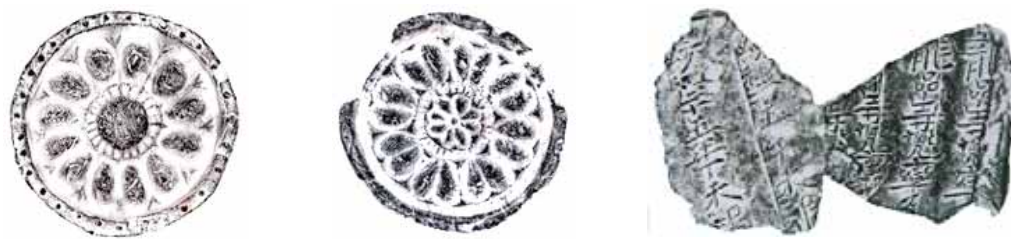
긴 눈·느슨한 어깨·부은 얼굴

'천년의 미소' 월출산의 화룡점정

불 주변에서 출토된 문자기와와 조선후기의 문헌 등에서 그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용암사 관련 최초의 기록은 고려 초기의 기와에서 찾게 되었다. 고려 초기의 평기와편에 '龍巖寺兜率'(용암사도솔)과 '統和二十五年丁未'(통하이십오년정미)란 글자가 새겨진 것을 현장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절터에서 '龍巖寺'와 '統和'명의 기와편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統和二十五年丁未'명의 기와를 1999년 마애불 뒤편에서 필자가 수습하였다. 통하이십오년정미는 1007년(요나라 성종 25, 고려 목종 10)으로 간지까지 정확하여 중요한 자료이다.

기와의 존재는 마애불을 조성하고 마애불을 보호하였던 목조건물이 있었던 것을 잘 증명해 주고



왼쪽부터 12엽 단판 연화문 암막새와 8엽 복판 연화문 암막새, '통하이십오년정미', '용암사도솔'명 문자기와 탁본.

있다. '용암사'란 이름의 기와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 절의 창건 때 이름은 '용암사'가 확실하다. 하지만 용암사의 창건을 알려주는 문헌은 전혀 보이지 않아 마애불의 공반유물인 기와에서나마 이 절의 첫 출발을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다. 그 후 고려시대나 조선 전기 역시 용암사 관련 문헌은 찾아볼 수 없어 어느 시기엔가 폐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폐사되었던 용암사는 임진왜란 직후인 1604년에 중창되어 30여 명의 스님들이 주석하였으며, 금불(金佛) 1구가 봉안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김정호가 1862년에 편찬한 '대동지지'(大東地誌) 이후의 문헌에 등장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용암사는 19세기 후반 경에 폐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월출산 마애불은 전반적으로 안정감과 장중한 인상을 주며, 섬세하고 정교한 조각기법과 더불어 박진감이 잘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옆으로 길게 표현된 눈, 어깨와 팔의 느슨한 표현, 얼굴 전체에서 나타나는 부은 듯한 경직성 등을 고려하여 통일신라시대 후기, 나말여초 혹은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하여 왔다.

모두 불상의 양식만을 파악하여 마애불의 편년을 설정한 견해들이다. 이처럼 문헌에 등장하지 않은 문화재는 어느 시기에 조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 그 문화재와 공반되는 유물이 있다면 편년을 설정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다행히도 마애불 뒤편의 좁은 공간에서 많은 양의 기와가 출토되었다.

이 곳에서 출토된 기와는 당초문과 연화문 암막새, 연화문 수막새 5종류, 문자기와, 13종류의 암수기와 등으로 고려 전기에 조성된 것들이다.

이 기와들 가운데 절 이름과 절대연대를 알려주고 있는 '龍巖寺'(용암사)와 '統和二十五年丁未'(통하이십오년정미)명의 평기와가 가장 중요하다. 절을 창건하면서 마애불도 같이 조성하였는데 절 이름은 '용암사'였으며, 창건은 고려 목종 10년인 1007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드러났다. 결국 월출산 국보 마애불은 나말여초의 애매한 시기에 조성된 것이 아니라 고려 전기인 1007년에 조성된 것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조선국사의 삼한통일의 '비기'(秘記)에 의하여 세워진 삼암사(三岩寺)의 하나였던 용암사가 바로 이 절터였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현재 이 마애불의 문화재 명칭은 '영암 월출산 마애여래좌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마애불이 있던 절이 '용암사'로 밝혀졌기 때문에 '영암 용암사지 마애여래좌상'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순천대 사학과 교수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이사
-(재)동북아시아학연구소 이사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한국기과학회 회장

신양파크호텔

가을여기행

기간 · 9월 1일 ~ 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 100,000 / 디럭스룸 ₩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

